

기리시탄 수난의 시작: 도요토미 히데요시에서부터 도쿠가와 막부 초기에 이르기까지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바테렌(신부) 추방령

일본에서는 1549년, 예수회 선교사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일본을 방문하면서부터 그리스도교의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일본에서 새로운 종교로서 급속히 퍼져갔지만, 당시 일본 통일을 꾀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87년에 돌연 그리스도교 신부 추방령(바테렌 추방령)을 공포하며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금지시켰습니다. 1588년에는 오무라 스미타다와 그의 아들 오무라 요시아키, 아리마 하루노부가 예수회에 헌납한 나가사키, 모기, 우라카미를 직할령으로 삼았습니다.

1596년에 스페인 선박 산 페리페호가 표착하게 되면서 그리스도교의 포교는 무력을 통한 침략의 포식에 불과하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이를 계기로 히데요시는 1597년 2월에 가톨릭 신자 26명을 나가사키의 니시자카에서 처형했습니다(이 사건은 일본 26 성인의 순교로 알려져 있으며, 처형된 신자 중에는 프란치스코회와 예수회의 선교사나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반면, 히데요시는 유럽과의 무역에 적극적인 태도를 유지했고, 이로 인해 금교령이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아 이후에도 선교 활동은 계속되었습니다.

도쿠가와 막부와 금교령(禁教令)

히데요시는 1598년에 사망했습니다. 1603년에 에도 막부를 개창했던 히데요시의 후계자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당초에는 히데요시와 마찬가지로 무역을 위해 그리스도교를 용인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 내 그리스도교 신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가장 많았던 시기에는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1610년 1월, 아리마 하루노부가 포르투갈 선박 노사 세뇨라 다 그라사호를 공격한 사건과 이로 인해 발생한 1612년 기리시탄 다이묘(영주)를 둘러싼 음모(오카모토 다이하치 사건 등)를 계기로, 1605년에 은퇴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뒤를 이은 2대 쇼군 히데타다는 그리스도교를 더욱 심각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1612년, 히데타다는 막부의 직할령이었던 에도와 교토 등에 금교령을 공포하였으며, 이후 1614년에는 일본 전국에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금지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약 260년 뒤인 그리스도교 금교가 해제될 때까지 수난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설명

그림 1

오무라 스미타다는 최초의 기리시탄 다이묘(영주)였다. 나가사키 개항을 허가한 후 1571년에 포르투갈 선박 2척이 입항했다.

카르דים 『일본 순교 정화(精華)』 1646년 초판 및 1650년판에서 발췌
(나가사키 역사 문화 박물관)

그림 2

1597년에 나가사키의 니시자카에서 순교한 일본 26 성인. 순교자들은 1862년에 시성되었다.

《일본의 순교자들》 1628년
(나가사키 역사 문화 박물관)

그림 3

예수회 선교사(왼쪽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인물)와 프란치스코회 선교사(오른쪽 회색 옷을 입고 있는 인물)의 모습.

가노 나이젠 《남만병풍》 부분
모모야마 시대(1573~1615)
중요문화재
(고베 시립 박물관 소장)